

원전세 수백억, 안전 아닌 개발에 쓴 지자체

전남도·인접 4개군 한빛원전서 8년간 435억 할당받아 철새공원 조성사업 등에 써...방재 관련 사용 28% 불과

전남도 원전세 172억원 사용 내역

섬 문화 터미널 조성.....13억
자동차야영 리조트.....70억
지역환경 조성사업.....76억
신재생에너지 육성 펀드.....12억

방재사업엔 8000만원 불과

접지역도 최근 8년간 내려받은 원전세 대부분을 지역 개발 사업에 썼다. 신안군의 경우 국제 철새공원 조성사업(8억5000만 원), 천일염 특구 조성사업(26억5000만 원), 해양자원 복원화 사업(12억5000만 원) 등에 모두 투입한 반면, 원자력 및 재난·재해 대비 방재사업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 '안전' 경시 풍조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은 도리포항 조형등대 설치(5억5000만 원), 상수도 사업(16억3000만 원), 바다환경 회복사업(12억 원), 어류종묘 방류사업(5억2000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란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등)는 특수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소방사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납세 의무자는 원자력발전 사업자, 수력발전 사업자 등이며, 과세주체와 납세지는 특별시나 광역시·도다. 원전 세율은 0.5원/kwh으로 발전용수(2원/10m)보다 낮다.

만 원) 등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 사업에 39억 원(73%)을 쓴 대신, 재난상황실 건립(2억7000만 원), 마을일제방송 시스템 구축(10억6000만 원), 재난경보시설(1억2000만 원) 등 방재사업에는 14억5000만 원(27%)을 썼다.

반면, 장성군은 상대적으로 안전 부문에 절반

이상을 썼고 함평군은 원전피해 예방시설물 정비사업(19억4000만 원), 해일 침수방지 사업(7억5000만 원), 해상재난 대피시설(29억6000만 원)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76%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 관리를 위한 미흡한 시스템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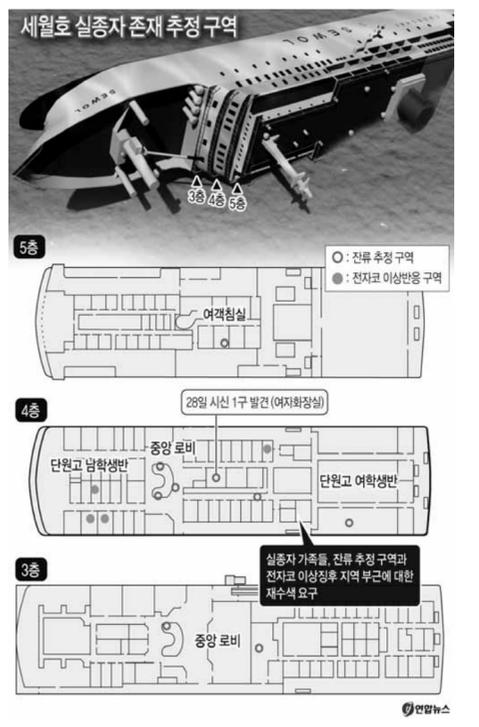
한빛(영광) 원전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원전 방재 업무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하는 등 부족한 실정이다. 원전 관련 방재연구기관도 설치되지 않은 형편이다. 부산만 하더라도 원전 전담부서를 두고 8명이 원전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전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접 4개 시·군에도 향후 지역 개발 사업과 함께 방재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이 펠러 비즈를 체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의 청소년 비즈쿨(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 성과 공유 및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것으로, 31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월호 실종자 시신 1구 수습 DNA 분석 후 유족 인계키로

법정부사과대책본부는 28일 오후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한 희생자 1명을 수습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조당국은 28일 오후 5시30분께 세월호 4층 중앙화장실에서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1명을 발견했지만, 수습시 야·작업공간 확보에 난항을 겪어 인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기에 시신 훼손을 최대한 줄이려는 구조당국의 노력에 따라 인양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수습된 시신은 DNA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실종자가 수습된 것은 지난 7월 18일 오전 세월호 식당칸에서 여성 조리원 발견 이후 103일만이다. 세월호 사망자는 295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9명으로 줄었다.

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광주시 동구 금동에서 '무법자'로 통한 김모(56)씨. 그는 지난 7월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동네 노인·시장 상인들을 괴롭혀왔다. 주로 자신보다 힘이 약한 노인이나 하루 벌어 사는 영세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며 돈을 뜯어왔다.

그의 행패를 참다 못한 주민 등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를 이른바 '동네 조폭'으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지난달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이후 주민들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냈다.

상인들은 탄원서에서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고 당해 왔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다"고 털어놨다.

경찰이 최근 '동네 조폭'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생떼에 강탈·협박을 일삼으며 동네의 평

동네조폭 사라지면 동네웃음 살아날까

광주경찰, 서민 갈취 46명 검거...보복 협박에 불안감 여전

와를 깨는 '무법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0일 현재까지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46명을 붙잡았으며 이중 14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건수는 모두 124건. 유형

을 내지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붙잡힌 동네 조폭 46명 중 전과 20명 이상의 상습범은 모두 12명. 죄다 전과자는 45명이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동네 조폭들의 활개는 주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내가 몇 개월 살다가 나를 테니 그때 두고 보자"는 이들의 협박 때문이다.

주변에 동네 조폭들이 많고 이들로부터 상습적인 피해를 당하는데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다.

동네 조폭 근절을 위해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와 함께 한시적이 아닌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모텔행 거절에 주먹질 20대 男 결국 경찰서행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즉석 만남을 가진 뒤 모텔에 가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 이 경찰서행.

○...29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박모(24)씨는 이날 새벽 3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불로동 M편의점 앞길에서 이모(여·21)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졸랐다는 것.

○...박씨는 때마침 M편의점 앞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이씨가) 처음엔 모텔에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자 화가 났다"고 진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무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협의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원 이상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시세 및 감정가 -7억 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대출 3억5천만원 가, 보 2억에 월27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대형주차장, 전체울수리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울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0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울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70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